

‘쌀로빵’ 상표권 침해 아니다



쌀로빵
쌀로빵은 골계 및 골계 알갱이를 골계로
얇게 잘라 쌀을 문질러 낸 스킨의
쌀로빵으로 만들어진 쌀로빵과
쌀로빵이 다른 쌀로빵과
쌀로빵이 다른 쌀로빵...



쌀로빵 350g
쌀로빵은 잘 정제된 쌀가루를 제외한
조각의 쌀을 만들고, 이를 적당한 상태
로 건조시킨 다음 고급 식용유에 튀
겨낸 것이다.

쌀과자에 흔히 이름 붙여지던 ‘쌀로~’라는 명칭은 이제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쌀로별, 쌀로랑’ 등 쌀과자를 판매하는 ㈜기린이 ‘쌀로빵’이란 상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쌀과자를 판매해 온 Y제과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 중 ‘쌀로’라는 부분은 해당 제품이 쌀로 만들어졌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른 상표와 유사한 지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쌀과자 시장 규모는 5백50억원 정도로 ㈜농심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원고 상표 가운데 ‘쌀로’라는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각인되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과제 공동 참여

공공연구기관의 핵심 개발과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위촉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9월 11일 공공연구기관에 특허청 심사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자부품연구원 유비쿼터스 컴퓨팅연구센터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의 디지털전송팀 심사관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위촉 연구원 신분으로 과제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특허분석과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등 특허출원 튜터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허청은 기술개발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특허권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매년 업종별, 기술분야별 특허맵을 통한 특허동향 분석을 포괄적으로 벌여 왔지만 특정 개발과제에 대한 맞춤형 특허분석이 되지 않아 특허분석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특정한 연구개발 과제에 맞는 특허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단순하고 광대한 자료를 제공해 사실상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특허청은 ‘공공연구기관들은 많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특허획득 부분이 다소 미약한 것 같아 이런 계획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보아가며 다른 연구기관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특허분쟁, GS칼텍스 승소

현금영수증 발급기술을 둘러싼 GS칼텍스와 적립식카드사인 신보람과의 특허분쟁에서 GS칼텍스가 승소했다.

지난 9월 4일 법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GS칼텍스가 신보람의 ‘복권·소득공제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특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신보람의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널리 알려졌던 기술이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신보람은 특허출원 전인 지난 2000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기술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을 통해 미리 알렸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에서 이를 알려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신보람의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보람의 특허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를 제시하면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서버로 전송되는 기술로 지난 2001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03년 6월에 특허 등록받았다.

GS칼텍스 등이 지난해 말부터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 서비스를 실시하자 신보람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GS칼텍스도 3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유사 발명 막아

우리나라의 전통약재나 전통의약 지식이 외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지식 DB’가 구축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전통의약 관련 국·영문 DB를 구축해 주요국 특허청에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을 이용, 특허를 통해 사업화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인도,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전통지식 DB를 광범위하게 구축해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은 국내법을 정비해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TCM 특허DB가 대표적인 것으로 1천7백 16건의 특허와 4천1백77건의 전통처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 전통지식 보호에 나서는 것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소중한 전통지식이 다른 국가에서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국적기업인 그레이스사와 미국 농림부는 인도에서 전통의약품으로 사용했던 님(Neem)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살충제로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그 후 인도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신청해 유럽 특허청은 취소했다. 인도가 전통지식 DB를 미리 구축해 제공했다면 심사단계에서 특허가 거절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3년간 70억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발행된 전통의약 논문과 처방, 약재, 한의학 고문서를 국·영문 DB로 구축할 계획이며 인터넷으로 이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제대식 과장은 ‘DB가 구축되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지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의 특허권 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신약 중 상당부분이 천연물 기원물을 고려할 때 이런 전통지식의 DB화는 소중한 전통자원의 보호활동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지재권 e-러닝 기관’에 뽑혀

한국이 지식재산권 e-러닝 분야의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9월 1일 특허청에 따르면 APEC은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 사무국에서 열린 예산운영위원회(BMC) 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을 지재권 e-러닝(원격교육)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2년간 30만 달러의 APEC 기금을 제공키로 했다.

APEC 기금 30만 달러는 올해 94건의 예산운영위원회 심의 사업 중 최대 규모.

APEC은 ‘정보기술(IT) 강국의 이미지에 걸맞은 한국 특허청의 높은 정보화 수준과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교육사업 수행실적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APEC의 이번 결정으로 특허청은 APEC 역내 지재권 e-러닝 분야를 주도하면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지재권 e-러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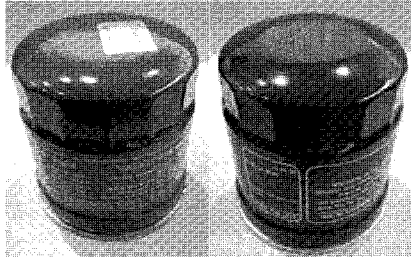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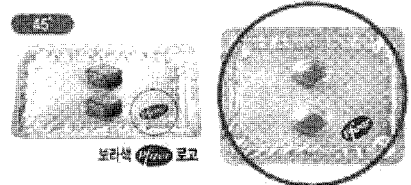
‘초A급 짝퉁’ 단번에 잡는 사이트 뒀다

인터넷 쇼핑물의 발달로 보편화된 ‘병행수입 명품’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명품 수입업체 사장, 전직 상표권 담당 경찰관, 전직 짝퉁 제조사가 모여 만든 ‘KCPC (kpcpc.com)’는 진짜인지 짝퉁인지에 대한 ‘초A급 짝퉁’도 단번에 가려낸다.

짝퉁을 진짜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환불,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소비자의 의뢰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도맡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짝퉁임을 발견해 환불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 업자가 도망을 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명품 병행수입 사업을 하던 이찬일 KCPC 대표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짝퉁으로 소비자를 속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브랜드 상품 중 상당수가 정교한 가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짝퉁이 판을 치는 이유는 ‘병행수입품’과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국내 상



캘러웨이 골프채 진품(왼쪽)은 헤드 연결부분에 별표(*)문양이 있으나 가짜는 별표(*)문양이 없고, 조잡하게 처리되어 있다(상). 비아그라 정품(왼쪽)은 45도를 기울이면 로고의 색상이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지만 가짜는 색상 변화가 없다(중). 현대모비스 연료 필터 진품(왼쪽)과 가짜(하).

표권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품은 사후보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소규모로 유통하는 탓에 마진율이 낮고 그만큼 가격이 싸다. 하지만 정식 매장이 없기 때문에 ‘짝퉁’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 그러다보니 일부 약덕 업자들 중에는 병행수입품과 짝퉁을 동시에 준비해 놓고 모두 병행수입품인 것처럼 파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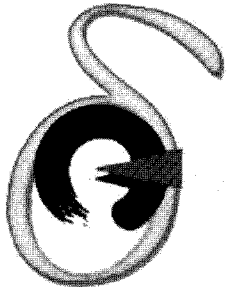
이 사이트는 네티즌이 짝퉁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국가기관에 의뢰, 수사에 착수한 후 지급되는 포상금을 전액 제보자에게 전달하며 사이트 자체적으로 마련한 포상금도 별도로 지불할 예정이다. 각 브랜드별 짝퉁 감별법, 신고요령 등이 기재된 사이트 이용은 무료이며 전문가 감별에는 1만원의 수수료가 주어진다.

이 대표는 ‘사이트가 오픈되면 대부분의 짝퉁 시장 정보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서 30건 이상의 영장을 청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짝퉁 박멸의 의지를 나타냈다.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특허청이 6시그마의 전사적 추진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 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9월 14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시그마 1차 사업의 최종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특허청 6시그마팀이 수행한 6개 핵심과제 결과를 공개했다. 6개 과제 수행팀은 심사·심판 오류를 최소화, 출원·등록 오류를 최소화, 심사대기 기간 편차 감소, 심사실적 특정 지표 개발, 고객만족도 제고, 서류 전달 기간 감축을 주제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6개 핵심과제별 1차 사업결과 발표에 따르면, 심사·심판 오류를 최소화팀은 특허심사 시스템 개선, 명확한 처리지침 등을 통해 심사·심판의 절차상 오류율을 개선하여 처리기한 위반건수와 재작업율을 줄임으로써 절차상 오류를 심사관이 5년간 1회 범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출원·등록 오류를 최소화팀은 출원·등록 과정의 절차상 오류율을 전산방식심사프로그램 개선 및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



여 고객에게 잘못 전달되는 오류 통지 건수를 5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전했다.

심사대기 기간 편차 감소팀은 6시그마 기법의 핵심인 편차의 개념을 적용하여 우선 급년 내로 심사대기 평균기간보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중인 출원건을 전량 해소할 예정이며, 또한 편차감소 시스템 구축, 심사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심사대기 평균기간 편차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심사자연에 따른 고객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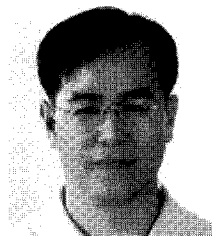
심사실적 측정지표 개발팀은 출원건의 청구항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심사실적 측정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관

의 실질적인 심사부담에 따라 공정한 성과평가를 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14명의 전담요원을 선발하여 6시그마 핵심요원(Black Belt, BB) 양성 교육을 1개월간 실시하고 4개월간 기존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전업으로 과제 수행에 전념토록 한 것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지원할 국·과장급은 지도자(Champion) 교육, 같이 추진할 직원은 참여요원(Green Belt, GB) 교육을 진행하여 함께 참여한 것도 성공적인 과제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6개팀은 이번에도 도출한 개선안을 지난 6월말 개통한 특허청 성과관리 시스템의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후에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승진, 성과급 등 보상과 직접 연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허청의 전사적 6시그마 경영체제의 도입은 현재 BSC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주의 경영, 지식 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과 더불어 업무혁신의 4가지 전략적 이니셔티브로서 성과중심의 특허청 혁신 추진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심사관, 암세포 전이 유전자 규명



암세포 전이 유전자를 규명, 유전자 진단에 따라 암 전이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힌 특허청 박영관 심사관.

최근 특허청 심사관의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 제네틱스' 인터넷판에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관에 근무하는 박영관 심사관(39·수의학 박사)이 바로 그 주인공. 박 심사관은 '암전이 관련 유전자와 Mtesl의 후보 유전자 Sipal'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암세포 전이는 특별한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암세포 전이는 특정 유전자를 통해 전이가 활성화되고 줄어든다는 이론이 여러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입증한 것은 박 심사관이 처음이다. 그는 마우스 제19번 염색체의 중심체 부근이 암세포 전이와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는 유전자들을 마우스 게놈프로젝트 정보와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 유전자를 동정하고 그 수를 한정할 다음, 그 중 단일염기변이가 있는 'Sipal' 유전자가 암세포 전이에 기능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유전형에 따라 암세포 전이의 양태가 개체마다 전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실험을 통해 암전이 유전자 기능을 보유한 쥐는 암이 급속도로 전이했고 전이 기능이 없는 유전자 쥐는 암의 전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수의학 박사인 그는 직접 수백 번의 수술을 통해 가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박 심사관의 실험 결과는 암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 개인의 유전형에 따른 맞춤형의학의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유전자 진단을 통해 사람에게 암 전이의 속도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전이가 능성이 있다면 암 검사를 3~6개월마다 실시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성과이다.

금융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활발

'독도사이버 지점' 등 금융 영업방법(BM) 관련 특허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4일 특허청에 따르면 '99년 59건에 불과하던 금융 BM 특허출원이 2000년 이후 벤처 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활성화에 힘입어 2000년 7백42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2001~2005년, 한 해 3백여건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특허 출원 이후 심의를 거쳐 실제 특허등록을 마친 건수는 2001년 4건에서 2002년 70건, 2003년 85건, 2004년 96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금융 BM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특허로, 주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금융과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장학생 선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는 오는 10월 5일까지 '제3회 발명장학생 선발대회'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모두 4억1천5백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발명장학생은 학생 발명가의 발굴 지원과 우수 발명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선발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발명 지도교사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각각 1백명, 초·중학생은 각각 50명, 발명 지도교사 6명 등 총 3백6명이다. 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등급 20명에게는 각각 3백만원과 4백만원의 발명장학금이 수여되며 초·중학생 1등급 20명에게는 각각 70만원과 1백만원의 발명장학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발명장학생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서 재판 청구 가능

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재판을 청구,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우리 재판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기업의 국내 업체 지적권 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주어진다고 판단,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지적권 침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특히 중국 등지에서 지적권 침해로 시달려온 국내 업체들에게 권리구제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국내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본인의 시나리오를 허가 없이 도용했다'며 미국 대형 영화제작사 드림웍스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이 사건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지난 9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드림웍스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만든 시나리오와 특별한 유사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 디자인 유럽 출원 급증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의 디자인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과 국민이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출원하나 디자인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디자인을 출원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총3백9건으로 EU 비회원국 중 11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 7월 말까지 3백44건이 출원돼 지난해 출원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U 비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스위스, 홍콩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전시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 등록

대전시는 지난 9월 19일 자체 브랜드 슬로건인 'It's Daejeon'이 특허청에 정식 상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앞으로 이 상표에 대한 향후 10년간 독점권을 갖게 되며, 21세기 도시 간 이미지 경쟁 시대에 발맞춰 차별화된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역 상품과 연계한 공동 브랜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 브랜드인 'It's Daejeon'을 개발,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으며 1년 2개월의 심사기간과 출원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상표 등록을 마쳤다.